

1번문제입니다.

제시문(가),(나),(다)는 모두 순리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가)는 매화의 곧은 성질과 뻣뻣한 성질을 매화의 순리라고 보고 이러한 순리의 아름다움을 옹호한다. (나)는 무량수전과 부석사 석축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들의 순리라고 보고 이러한 순리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그리고 (다)는 비록 꾸밈을 지라도 티가 나지 않은 우아함을 순리라고 보고, 이 순리를 강조하고 있다.

세 지문 모두 순리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순리의 아름다움이 인위적으로 얻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선 입장이 같린다. (가)는 순리의 아름다움이 인위적으로 얻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가)의 문인화가들은 매화의 곧고 뻣뻣한 성질을 변형시켜 휘고 성기게만 들여야 이것들이 비로소 매화의 순리가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에서는 순리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즉 매화는 자연 그대로 있을 때 순리를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순리의 아름다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나),(다)는 순리의 아름다움이 인위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인위성을 드러내야 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나)는 순리의 아름다움이 인위성을 드러내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얻어질 수 있다고 본다. (나)의 무량수전과 부석사 석축들은 인위적 건축물이다. 하지만 무량수전은 주변 자연물들인 산이나 절 밖 터전들과 조화를 이룬다. 또한 부석사 석축들은 이끼가 낀 상태로 보존되는데, 이는 자연과 인위적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룬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다)는 순리의 아름다움은 인위적 꾸밈기를 한뒤 이러한 꾸밈을 티내지 않는 것에서 온다고 본다. 즉 (다)에서는 순리란 인위적인 것에서 오지만, 이의 아름다움은 그 인위적인 것을 표면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온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다)는 인위성으로 순리를 얻은 뒤 인위성을 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2번 문제입니다.

제시문 (라)의 그림은 '소비자의 선호 고려'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라)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했을 당시에 이 원석은 특정한 모양없이 몽툰하고 뿔뿔하게 생겼었을 것이다. 이러한 원석을 가공해서 특정한 모양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을 것인데, 가공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라)의 물방울 모양 뿐만아니라 하트, 별 모양 등을 만들 수 있다. 이로 볼 때 (라)의 가공된 다이아몬드는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를 평가했을 때, (가)의 주장은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는 매화의 기본성질들을 순리라고 여기며 이 순리를 인위적으로 가공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매화도 (가)에 나타난 것처럼 소비자가 존재하는 상품이고, 소비자들 즉 (가)의 문인화가들이 매화의 가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가)의 주장은 이를 무시한 것이 된다. 따라서 (가)의 주장은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또한 (라)의 그림은 '효용성'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라)의 다이아몬드 원석은 거의 어떠한 쓰임도 쓸모도 없다. 하지만 이 원석을 가공하여 다이아몬드를 만들게 되면 이것의 가치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원석을 가공해서 즉 (가)가 말하는 순리를 거슬러서 효용성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 관점에서 (가)를 평가했을 때, (가)의 주장은 효용성 없는 순리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에서는 순리를 꼭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어떠한 인위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인위성으로 인해 순리가 거슬러졌을 때는 병과 폐해가 생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라)의 다이아몬드 원석은 순리를 거스르고, 가공을 했을 때, 병이나 폐해가 생기기는 커녕 오히려 효용성이 증가하여 그 가치가 올라갔다. 이를 통해 (가)의 순리에 매달리며 어떠한 인위성이나 가공도 거부하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